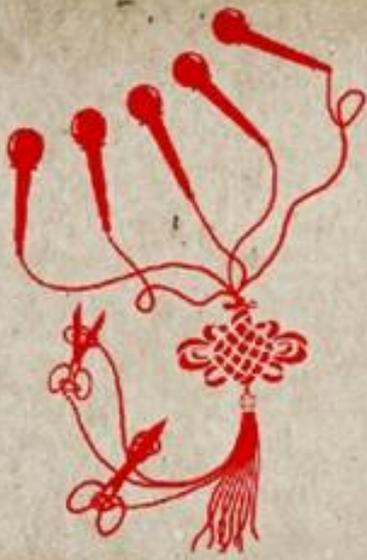


# 동방신기 中팬, 데뷔 6주년 맞이 韓일간지 광고 '소속사 압박'

입력 2009. 12. 26. 09:17 · 수정 2009. 12. 26. 09:17



당신들은 다섯이 가꿔온 6년의 꿈을 잘라내려고 하고 있고,  
다섯으로 인해 행복했던 수십만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다.

다섯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멈춰라.  
다섯이 자유롭게 속박없이 노래 부르게 하라.

지금의 폭풍우는 곧 사그라질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지키고,  
雨過天晴할 날을 기다릴 것이다.

*We are always standing by TVXQ*  
- 중국 동방신기 비이투 BAR -

< 그 가위가 닿았던 것은 이미 떨어져있는 다섯과 우리 사이의 연명이다 >



[뉴스엔 차연 기자]소속사와 일부 멤버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룹 동방신기 중국 팬들이 데뷔 6주년을 기념해 한국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 "동방신기를 괴롭히지 말라"며 소속사 측을 압박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내 중국팬 모임인 '바이두바'는 한국 경향신문 26일자 1면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서 이들은 "당신들은 다섯이 가꿔온 6년의 끈을 잘라내려고 하고 있고 다섯으로 행복했던 수십 만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다. 다섯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멈춰라. 다섯이 자유롭게 속박없이 노래 부르게 하라. 지금의 폭풍우는 곧 사그라질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지키고 기다릴 것"이라며 소속사 측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 동방신기 팬들을 통해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 "데뷔 6주년 기념일을 통하여 동방신기 중국 팬들은 바다건너편 한국 매체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광고를 내게 되었다"며 "현재 소속사에서 끊임없이 동방신기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팬들은 단결하여 견고한 매듭을 형성하여 동방신기와 그들의 꿈을 지킬 것"이라고 광고를 게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함께 비가 멈추고 하늘이 맑아지는 그 날에 부담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SM에서 동방신기를 괴롭히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이러한 수호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동방신기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일본 TV아사히 '뮤직 스테이션 슈퍼 라이브'에 5인이 함께 출연했다. 동방신기는 오는 30일 '일본레코드 대상'과 31일 NHK '홍백가합전'에도 5명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반면 지난 7월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등 3인이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뒤 한국에서는 5인이 모두 무대에 선 적이 없는 상태다. 지난 12월 12일에는 3인만 참석한 팬미팅이 열려 3인이 유노윤호, 최강창민과 재결합하지 않고 독자적 행보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차연 sunshine@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